



Colors, Future!
いろいろって、未来。

川崎市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67

편집 · 발행 : 시민문화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20년 1월 8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알기쉬운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에 참가했습니다>

2019 인터내셔널·페스티벌 in 가와사키가 7월 7일(일),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약 14,000 명의 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대표자회의의 PR 뿐만 아니라 퍼즐게임, 국기그리기, 그리고 리본으로 물고기 만들기 등을 하는 등,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와사키 시민마츠리에 참가했습니다>

11월 2일(토)~4일(월·공휴일)에 개최된 제 42회 가와사키 시민마츠리 2일 째에 올해도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프닝 퍼레이드에서는 민족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연도에 있는 관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면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를 어필했습니다.

텐트에서는 세계의 의상 체험하기와 퍼즐게임 그리고, 국기그리기를 기획해서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준비하는 세계의 차 시음식은 올해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9 년도의 오픈회의가 11 월 10 일(일),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전체적으로 약 95 명의 참가가 있었고, 14 시부터 17 시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제 12 기가 2 년 째에 접어들어서, 시에 제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테마에 대해서 대표자의 생각을 소개하고 참가해 주신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전체적으로 제언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2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그룹의 테마로서, 그룹 A 가 《영유아 검진》에 대해서, 그룹 B 가 《학교에서 어린이의 일본어지원》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노동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코멘테이터로 모신 동경북지대학의 시부야 준이치 씨와 페리스여자대학의 오가야 치호 씨로부터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참고가 될 만한 의견과 제안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기간의 회의에서는 빈틈없이 심의하여 좋은 제언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양케이트에서는 제언안에 대해 「이 테마로 정한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제언의 배경·경위와 문제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라는 소감도 조금 많았습니다. 또한, 오픈회의의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의견을 오픈회의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는 현실 문제로서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외국인의 활약, 다문화공생 사회를 향하여 함께 의논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내 나라인 일본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여러분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사회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외국인·일본인 상관없이 함께 차세대를 위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등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교류파티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 원 스톱 센터와 QR트랜스레이터》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의 외국인 창구상담이 《다문화 공생 종합상담 원 스톱 센터》로써 리뉴얼되었습니다. 대응언어도 11 개 언어로 확충되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영어	●	●	●	●	●	●
중국어		●	●		●	
한국·조선어		●		●		
스페인어		●	●			
포르투갈어		●			●	
타갈로그어		●	●			
베트남어		●			●	
태국어	●	●				
인도네시아어		●	●			
네팔어		●				●
알기쉬운 일본어	●	●	●	●	●	●

【상담할 수 있는 것】

곤란한 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일, 알고 싶은 것 (의료, 보건복지, 행정수속절차, 교육, 양육 등)

【비용】

무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かわさきしなかはらく きつきぎおんちよう (川崎市中原区木月祇園 町 2-2)
 가와사키시 나카하라구 기즈키기온초 2-2

도큐토요코센·메구로센 「もとすみよし元住吉」(모토스미요시)역에서 도보 10~12 분

【상담 전용전화】

044-455-8811

【상담 접수시간】

10:00~12:00, 13:00~16:00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제외)

【HP】

<http://www.kian.or.jp>

※ *대응언어의 상담원이 없는 날에도 통역 서비스 및 통역 어플리를 사용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QR트랜스레이터

스마트 폰 및 태블릿 단말을 통해 간단하게 다국어 정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가와사키에서의 임신·출산·육아의 지원제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기쁜일이지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하고 불안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가와사키시에 있는 여러가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신에 관해서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모자건강수첩(母子健康手帳)』을 받도록 하세요."라고 하면, 구청에 가서 「모자건강수첩」(일본어 이외에도 외국어판(10개 국어)도 있습니다)을 받습니다만, 「모자수첩」안에 임신부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제도의 보조권이 붙어 있습니다. 보조권을 이용하면 병원에서 지불하는 비용은 건강 검진 비용에서 보조권의 금액을 제외한 차액이 됩니다.

다음은 출산에 관해서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출산 육아 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아동 1인당 42만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지소에 신청해 주십시오. (1)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지불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2) 직접 의료기관 등에 지불하는 제도를 이용했지만, 출산 비용이 42만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급받을 경우. 저의 경우는 회사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회사를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은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나 임신 12주 이상의 사산·유산의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에 관해서는 「아동 수당(児童手当)」과 「소아 의료비 조성 제도(小児医療費助成制度)」가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이 15세가 된 최초 년도의 3월 31일까지(중학교 졸업까지), 연 3회(6월, 10월, 2월)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소아 의료비 조성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아동의 보험 의료비의 본인 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동 수당」과 「소아 의료비 조성 제도」는 가정의 소득 상황에 따라 금액·내용이 다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창구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출산을 하면 병원으로부터 「출생신고서(出生届)」라는 것을 받는데, 여기에 아이의 성명과 출생일을 기입하여 반드시 14일 이내에 구청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 때, 「아동 수당」이나 「소아 의료비 조성 제도」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 창구에서 상담하면 좋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하도록 합시다!

가와사키시에 살고 있는 엄마 또는 예비엄마 여러분, 우리 함께 가와사키시에서 즐겁게 육아를 해봅시다!

(류 아이린)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210-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혼초 11-2 가와사키후론티아빌딩 9층
Tel: 044-200-2359 Fax: 044-200-3914 E-mail: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나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